전기차/배터리산업

2025년 EU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는 전기차/배터리 업황 반전 카드로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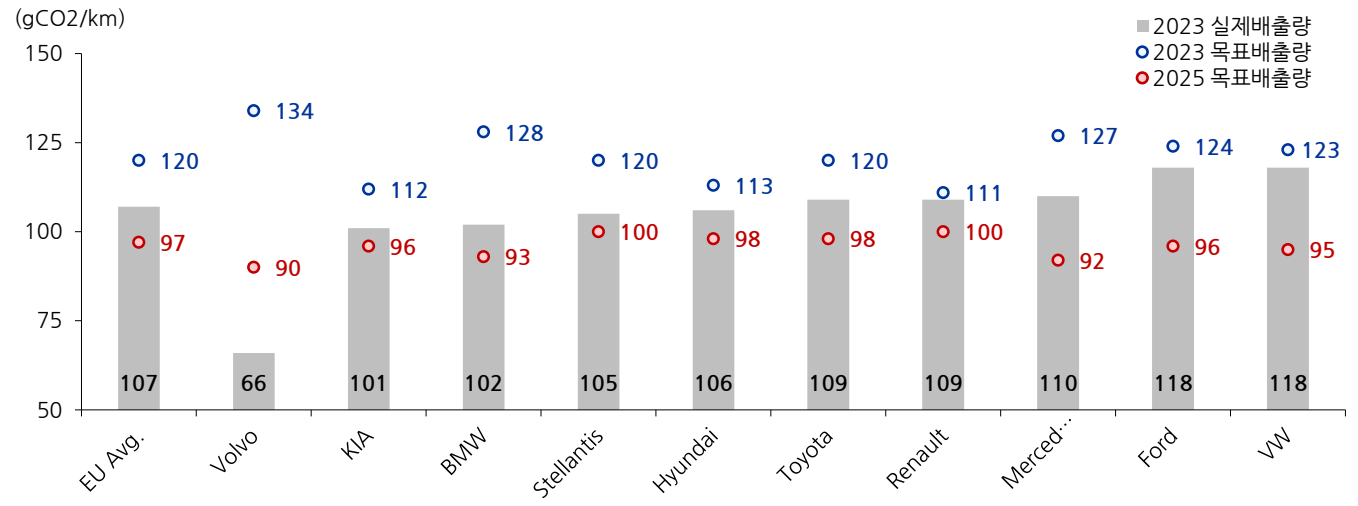
그린산업 포인트

2025 년부터 강화된 EU 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로 한국 배터리 관련주 급등. 하지만 하이브리드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있고, 유럽 내 중국업체들의 공장 가동 본격화로 한국 배터리 수혜 폭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Green Industry 한병화_ 02)368-6171_ bhh1026@eugenefn.com

- 2025년 신차 평균 CO2 배출량 15% 감축하는 일정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함께 3년전에 확정된 사항
- 당시 환경단체들과 녹색당 등에서는 2021~2024년 119g, 2025~2029년 15% 감축안(승용차, 상용차 등 전체 차량 기준 101g)을 반대. 업체들에게 2029년까지 5년간 추가적으로 이행 안해도 되는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
- 2023년 EU 신차 평균 배출량은 107g.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제외하고 감축 기준 준수 가능(T&E, 24년 4월 보고서)
- 감축 방법은 1) 순수전기차 판매 증가, 2) 하이브리드 증가, 3) 대형 SUV/상업용 차량 등 판매 축소, 4) 목표 초과한 업체의 크레딧 구매 등으로 다양. 완성차업체들의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가 뚜렷한 것도 이에 대비하는 것
- 우파가 득세한 새로운 EU 정부가 들어서면서 CO2 배출 규제에 대해서도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 유럽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배터리 역내 투자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전일 이 이슈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 전반의 주가가 급등했으나, 과도한 기대감 반영이라고 판단
- 당사는 2025년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를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 유럽에서 중국배터리 업체들의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업체들의 경쟁 강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

유럽 완성차 업체별 EU 탄소배출 목표, 2025 년 목표치 달성도 어렵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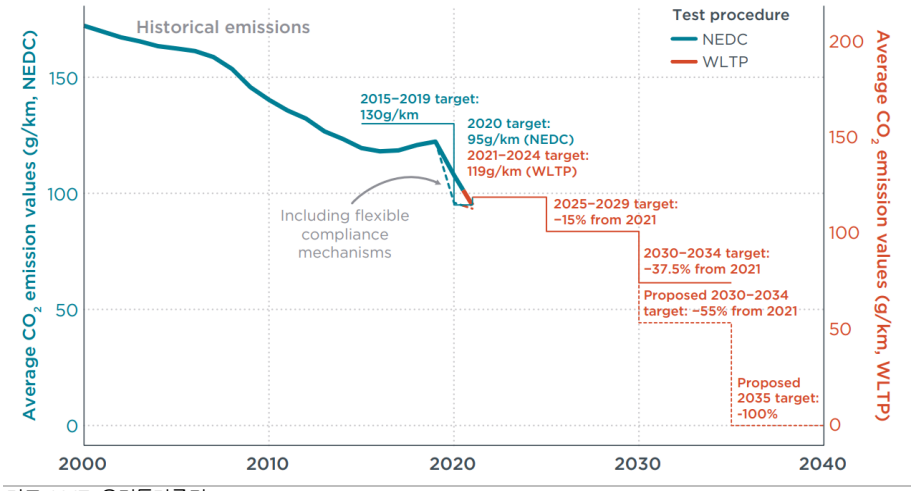


자료: Transport &Environment, 유진투자증권

2025 년 EU 배출량 감축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야

전일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이 EU 의 2025 년 신차 CO2 배출 규제 이슈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규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35 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하면서 신차에 대해 연간 CO2 배출 기준을 정했었다. 이를 정할 때에 환경단체들, 녹색당에서는 반대가 많았다. 매년 일정하게 배출 축소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 5 년단위로 감축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이다. EU 의 신차에 대한 CO2 배출 규제는 2021~2024 년 117g 을 기준으로 해서 2025~2029 년 15%를 축소하면 된다. 승용차와 상업용 차량 등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이를 기준으로 각 업체별 목표치가 정해진다. 기준을 위반하면 업체들은 그 해에 판매된 전체 차량대수에 위반 g 당 95 유로를 곱해서 벌금을 부과 받는다. 업체들은 이를 기준으로 차량 출시 계획을 짜고 있고, 이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단체인 T&E 는 4 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2025 년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도표 1. **EU 의 자동차 탄소배출 감축 목표, 2029 년까지는 부담 크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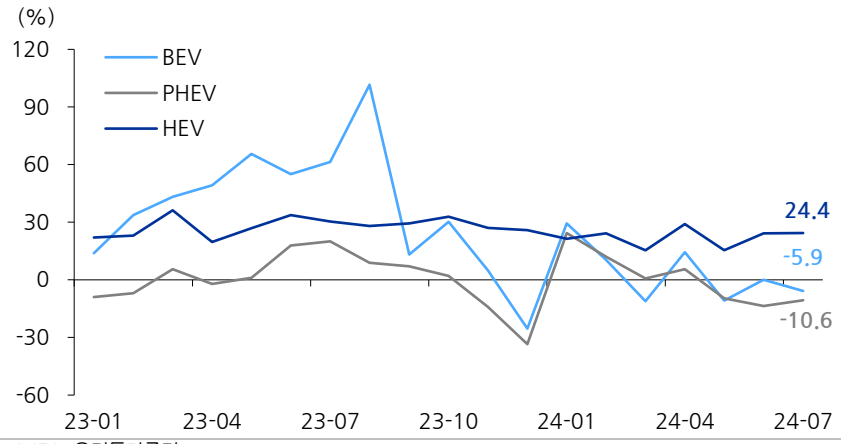


자료: ICCT, 유진투자증권

EU 업체들 전기차/배터리 계획 축소 또는 지연 발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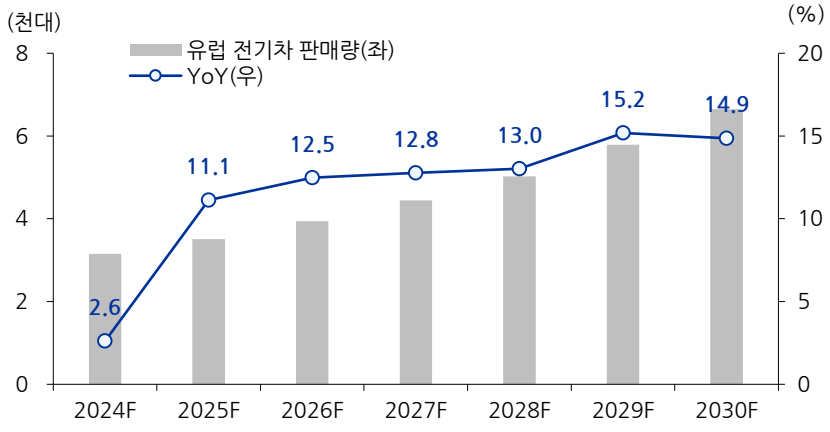
내년부터 확대되는 CO2 규제가 업체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왔다면 EU 업체들의 전기차와 배터리 계획 축소 도미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응 방안이 있었을 것이고 믿는 구석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대응방안은 하이브리드의 확대이다. 2029 년까지의 규제는 순수전기차와 더불어 하이브리드 확대로 달성 가능하다고 업체들은 계산하고 있다. 유럽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와중에도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7 월까지 누적으로 22%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믿는 구석은 정치지형의 변화이다. 우파가 득세하면서 EU 의 전기차 정책이 후퇴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중도 우파인 다수당 EPP 까지도 2035 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의 예외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CO2 규제에 따른 벌금 부과의 이연과 규제 자체에 대한 완화까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지한 유럽의 대부분의 완성차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표 2. **유럽 월별 BEV, PHEV, 하이브리드 증가율 추이**



자료: ACEA,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유럽 전기차 판매와 성장률 전망. 고속 모드 아니야**



자료: 유진투자증권

유럽에서 한국배터리업체들의 경쟁강도 크게 높아져

과거 유럽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은 70~80%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업체들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중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수출되는 형태이지만, 내년부터는 유럽 역내 생산이 본격화된다. CATL 은 독일의 첫 공장에 더해 헝가리에 최종 캐파 100GWh 의 세계 최대 공장을 건설 중이고 내년부터 부분 가동된다. Gotion은 독일에 5GWh의 공장을 가동 중인데 내년에는 20GWh 로 증설된다. AESC 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각각 30GWh 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EVE Energy, Svolt 도 헝가리와 독일에 각 28GWh, 24GWh 의 배터리 라인을 깔고 있다. 이들 중국업체들은 대부분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공장을 짓고 있다. 또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출자한 PowerCo(폭스바겐), ACC(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 등도 속도는 느리지만 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있다. 유럽 시장을 거의 독점하던 한국 배터리업체들이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성장 스토리가 한국 배터리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려면 경쟁이라는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도표 4.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949	2,464	3,214	4,129	5,129	6,168	7,296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712	2,173	2,853	3,688	4,590	5,509	6,492
YoY(%)	51.2	56.3	19.2	26.9	31.3	29.2	24.5	20.0	17.8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10.3	12.8	16.4	20.7	25.3	29.7	34.4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15	10,567	12,479	14,559	16,736	18,947	20,845	22,508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039	11,816	13,724	15,679	17,609	19,127	20,272
YoY(%)	83.7	36.6	24.0	17.7	16.2	14.2	12.3	8.6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2.4	37.0	41.7	46.3	50.5	53.2	54.8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810	975	1,159	1,367	1,607	1,908	2,294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155	3,506	3,944	4,448	5,027	5,790	6,651
YoY(%)	15.1	18.1	2.6	11.1	12.5	12.8	13.0	15.2	14.9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3.2	25.3	27.9	30.8	34.2	38.6	43.4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294	19,248	22,714	26,539	30,576	34,541	38,487
YoY(%)	55.0	35.7	19.0	18.1	18.0	16.8	15.2	13.0	11.4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1	20.8	23.8	27.3	30.8	34.1	37.3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6.30 기준)